

조이스, 동성애, 그리고 영국 제국주의

남 기 현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에 나타난 동성애(homosexuality)와 관련된 언급은 의외로 많다. 그가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의 작품에 동성애와 관련된 일화나 언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이스가 단순히 성적 성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자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제임스 조이스 쿼터리』(*James Joyce Quarterly*) 1994년 봄호는 조이스 작품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특집으로 다룸으로써 조이스 비평분야에서 동성애 문제를 수면으로 부상시켰고, 여기에 실린 글들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한 논문집 『동성애적 조이스』(*Quare Joyce*)가 출판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논의의 중심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가 보여주는 동성애혐오(homophobia)이지만, 『율리시스』(*Ulysses*)에서의 레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의 양성성(androgyny)의 문제도 다룸으로써, 많은 비평가들이 조이스의 작품에 있어서 성 담론(sexual discourse)의 논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장-미셸 라바떼(Jean-Michel Rabaté)는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함

으로써, 동성애적인 욕망의 저류를 형성하는 근친상간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 (159). 다시 말해서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는 다른 성 담론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영국의 식민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성 담론—남성성 및 동성애적 욕구—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스티븐의 동성애혐오가 남성성을 극대화하려는 영국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이며,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화된 아일랜드의 이미지를 식민지 정책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탈식민화하려는 아일랜드의 영웅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도 실제로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이념의 핵심인 남성성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둔 식민통치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낸 것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그 의미가 해체될 수 있는가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 문제는 일반적 논의에서처럼 개인의 성적 성향의 문제이거나 그들의 인간적 권리나 사회적 편견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식민지하의 아일랜드에서는 성 담론조차도 정치적이며, 역사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당시에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재판으로 인해 촉발된 동성애 논의가 조이스가 그리는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어 인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중심이 될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젠더(gender)가 적용된다.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일랜드의 전통과 역사를 부활하는데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강조된 것은 게일어(Gaelic language)의 부활이지만, 또한 아일랜드의 영웅적 과거사를 부활시킴으로써 영국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착화되었던 여성적 이미지의 탈피를 시도했던 게일 운동협회(Gaelic Athletic Association)의 역할도 중요했다. 이 협회는 남성적인 힘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스포츠인 헐리(hurley)를 부활하여 보다 강인한 남성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고대 켈트족의 남성적인 힘을 대표하는 전설적 영웅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계승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영국의 남성적 이미지인 ‘존 불’(John Bull)에 대항할 수 있는 남성성이 강조된 아일랜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이념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영국이 대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브리태니아’(Britannia)라는 여성적 이미지보다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존 불’(John Bull)이라는 남성적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이미지인 ‘하이버니아’(Hibernia) 또는 ‘에린’(Erin) 대신에 강력한 남성적 이미지를 추구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적 영웅주의의

추구는 영국의 제국주의 이념 뒤에 도사린 폭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조이스는 경계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여성적 이미지가 영국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성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민족주의 운동도 결국은 폭력의 정당화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국 제국주의의 틀에서 생산된 동성애 문화를 짚어봄으로써 조이스가 인식한 동성애 담론을 접근하고자 한다.

II.

조이스 작품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언급은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첫 이야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우선 「자매」("The Sisters")를 읽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왜 하필 제목이 “자매”일까하는 것이다. 물론 플린 신부(Father Flynn)의 죽음으로 인한 자매들의 삶의 일면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의 중심엔 플린 신부의 죽음과 주인공 소년과의 관계가 놓여져 있다. 따라서 제목은 플린 신부의 죽음에 관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플린 신부의 죽음의 원인에 관해서 늙은 코터(Old Cotter) 아저씨와 삼촌이 얘기를 나눌 때 아이에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신부가 교회실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에 관해서 늙은 코터 아저씨의 애매하게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분명히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계속해서 신부와 소년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아줌마가 아이들에게 나쁜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자, 늙은 코터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이들에게 안 좋아요, 라고 늙은 코터가 말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 영향을 잘 받아서. 애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알다시피, 그게 영향을 주죠....음 (D 5, 이탤릭체 저자강조)

코터가 지칭하는 대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흐린 말꼬리에 담겨진 의미는 미성년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금기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듣는 것을 의식한 어른들의 대화는 절제되어 있고, 무엇인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여

기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아동성애(pedophilia)의 가능성이다. 코터 영감의 의심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신부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단순하게 읽혀질 수 없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이의 꿈속에 나타난 신부의 모습을 보면 신부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면 꿈에 나타난 신부님의 모습에서 가능하다.

어두운 방에서 나는 마비환자의 회색빛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을 상상했다. 담요로 머리를 덮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했다. 그러나 회색빛 얼굴은 여전히 나를 쫓아왔다. 무언가를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이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나는 나의 영혼이 기분 좋고 악한 지역으로 물러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얼굴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얼굴이 왜 계속 웃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입술이 침으로 젖어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 얼굴이 마비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성직매매자(the simoniac)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약하게 나도 웃는 것을 느꼈다. (D 5)

플린 신부의 정신적 마비가 단순히 성찬식에 사용되는 잔을 시종이 깨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고해성사’는 ‘죄에 대한 면제를 추구하는 것’(a seeking for absolution after some transgression)(Castle 162)이라고 볼 때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장치가 신도들의 성적 욕망이 표출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린 신부의 죄도 성적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비밀”은 사실상 폭로와 숨김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유지된다고 볼 때, 『자매』에서의 플린 신부님의 정신이상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동성애적인 일탈임을 읽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Leonard, 77). 더구나 당시에 “the sisters”가 흔히 동성 남성 커플을 칭하는 속어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Jackson & McGinley 11). 물론 신부의 ‘죄’가 단순히 동성애였다는 인식보다는 가톨릭 사제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은밀한 성적 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가톨릭 사회를 은밀한 방법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플린 신부의 마비의 원인은 성적 욕구의 통제와 그 왜곡에서 찾을 수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두 번째 이야기인 ‘우연한 만남’ (“An Encounter”)에서도 동성애와 관련 된 중요한 언급이 있다. 조이스가 그의 동생 스타니슬라우(Stanislaus)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연한 만남’을 “오빌의 항해” (“The Voyage of

the Ophir”)의 저자인 조지 메러디스(George Meredith)에게 헌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영국의 교육제도—기숙사 학교—가 동성애 적인 욕구를 권장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엘먼(Richard Ellmann)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조지 메러디스의 왕당파 시는 1901년 웨일스 왕자와 왕자비가 제국을 여행한 것을 찬양한 시이다. 복잡한 연상 작용에 의해, 조이스는 유능한 작가의 이러한 아침의 태도를 영국 공립학교 교육이 생산하기 쉬운 동성애적 기질과 연관 지었다. (SL, 74 각주)

여기서 엘먼이 언급한 "복잡한 연상 작용"(a complicated chain of association)을 살펴봄으로써, 조이스가 보여주고자 하는 영국의 통치이데올로기와 남성성 그리고 동성애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메러디스의 시 “오빌의 항해”를 살펴보면, 그의 칭송시가 담고 있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읽어 낼 수 있다. 오빌(Ophir)은 솔로몬 왕이 보물을 얻었다는 전설의 땅으로, 메러디스의 시에서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정당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이스가 이 시를 언급한 것은 분명 이 시가 담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en of our race, we send you one
Round whom Victoria's holy name
Is halo from the sunken sun
Of her grand Summer's day aflame.
The heart of your loved Motherland,
To them she loves as her own blood,
This Flower of Ocean bears in hand,
Assured of gift as good.

시의 1연에서 메러디스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신성시함으로써, 3연에서의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영국의 제국주의 확산을 솔로몬의 여행에 비유하여, 지혜와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이스가 메러디스의 시를 영국의 제국주의의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 영국의 교육제도

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어떻게 영국의 교육제도가 동성애 내지는 동성애에 대한 공포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이러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데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재판은 처음엔 와일드 자신에 관한 명예 훼손 사건이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드러난 동성애의 실태는 보수적인 영국 사회엔 충격이었다. 조이스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인 성적 성향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고, 영국의 교육제도와와의 연관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한 신문기고에서 드러낸다.

그러나 진실은 와일드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현대 영국문명에서 솟구쳐 나온 도착적인 괴물이 결코 아니라, 은밀함과 제약을 포함한 앵글로색슨족의 대학 체계의 논리적 필연적 산물이다. (CW 204)

여기서 조이스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 그 자체를 영국의 교육제도의 논리적이며 불가피한 산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메러디스와 와일드에 관한 언급은 조이스가 교묘하게 영국의 교육제도가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과 동성애 문제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은밀함”(secrecy)과 “제한”(restrictions)은 영국 교육제도가 필연적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생산하게 되었음을 조이스는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에서 인식했다고 본다.

「우연한 만남」은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가 지적하듯이 “동성애에 대한 공포심”(homosexual panic)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20). 여기에 등장하는 낯선 남자는 그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a queer old joss”로 인식되는데,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queer”를 동성애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소년은 애인을 가지고 있지(Every boy . . . has a little sweetheart)”(D 17)라는 말이 그 “이상한 행동” 이후 변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혼잣말을 계속했다. 그는 조금 전의 관대한 태도를 잊어 먹은 것 같았다. 그가 말하길 만약에 여자애들에게 말을 걸거나 애인을 갖고 있다면 매를 때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하겠다고. (D 19)

즉, 앞선 언급은 아이들을 유도 심문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인을 갖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혐오적인 발언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태도이기보다는 사회적 이념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체스터 앤더슨(Chester Anderson)은 당시의 유행하던 소년잡지들 중에서 『제국의 소년들』(*Boys of the Empire*)이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여, 제국주의의 이념이 이러한 잡지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학습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53). 앤더슨에 따르면, 앨런 노드맨(Alan Northman)이라는 사람의 기고문의 제목과 내용이 노인의 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기고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력한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년들의 관심이 공부와 건강한 스포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53). 강인한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국의 교육 제도는 여성을 배제한 남성위주의 집단교육을 시행한 것이고,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이성애에 대한 욕구가 억제되거나 혹은 왜곡되어 자기성애(homeroeticism) 또는 동성애(homosexuality)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제국의 건설의 기초를 강한 남성성에 근거를 둔다고 할 때 영국의 기숙학교제도는 이러한 남성성을 여성을 배제한 교육을 권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념과 제국의 통치논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환경은 필연적으로 와일드의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국의 상류사회는 동성애 문화가 중요한 특징이었다.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에서 더피(Duffy)가 사용하는 경구는 남자들 사이의 성적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드러낸다: “남자들 사이의 사랑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적인 교접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사이의 우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적인 교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Love between a man and man is impossible because there must not be sexual intercourse and friendship between a man and woman is impossible because there must be sexual intercourse, D 100). 더피가 인용한 경구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성도덕의 기준을 드러낸다. 즉, 이성애적이고 결혼한 부부만이 정상적인 성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정상의 범주에서 시니코 부인(Mrs. Sinico)의 육체적인 접근은 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탈’인 것이다 (Bixby 117). 더피의 경구는 이러한 이성애를 ‘정상’으로 여기는 동시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것이다 (Jackson 85). 시

니코 부인은 더피가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거의 모성적 강인함으로 그녀는 그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권유했다; 그녀는 그의 고해신부가 되었다” (With almost maternal solicitude she urged him to let his nature open to the full; she became his confessor, *D* 98). 그의 고해는 가톨릭 사회에서 고해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부녀인 여성에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가톨릭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는 일탈행위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는 행위라는 점과 ‘죄’의 본성은 대부분 성적인 것이라고 볼 때, 더피는 자신의 성적 경험을 시니코 부인과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 담론의 공유는 자연스럽게 시니코 부인의 행동으로 이어졌지만, 더피는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보수적인 성 도덕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니코 부인의 성적 유혹을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성적 일탈의 거부는 결과적으로 4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더피는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피의 독신은 아일랜드의 생식능력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매거진 언덕(the Magazine Hill)의 어둠 속에서 만난 젊은 남녀의 사랑행위를 바라보는 더피의 모습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이성애만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파생된 기형적 형태일 뿐이다. 생명력을 상실한 채, 시니코 부인의 애정을 수용할 수도 없는 마비 상태일 뿐이다. 더피가 오히려 가슴 아픈 ‘경우’(cas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저널리즘의 판에 박힌 표현이 더피의 병리적인 ‘증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그의 고독감은 성이라는 ‘향연’에서 소외된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독신생활이 담고 있는 성적 왜곡의 가능성은 다른 형태로 조이스 작품에 분포되어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남자 기숙학교에서 일어나는 동성애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영국의 기숙사제도가 담고 있는 체제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애씨가 그의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왜 저 친구들이 벌을 받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 알지.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신비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사이먼 무난과 터스커 보일과 함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함께 있다가 잡혔어.

친구들이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잡혀?

—뭘 하다가?

애씨가 말했다.

—남자끼리의 음란한 짓.

모든 친구들은 말이 없었고 애씨는 말했다.

—그게 이유야. (P 43)

스티븐 디덜러스는 아직 “smuggling”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의 연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왜 화장실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거기에 가지. 그 곳은 온통 두꺼운 석판 암으로 되어있고, 물은 하루 종일 작은 구멍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거기에는 썩은 물의 이상한 냄새가 났지. (P 43)

남자 화장실은 서로가 성기를 노출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성애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스티븐은 특별히 더러움과 연관 짓고 있다 (Valente, 54). 캐서린 멀런(Katherine Mullin)이 주장하듯이, “진정한 남성성”(true manliness)이 빅토리아 사회의 “순결 성 이데올로기”(purity sex ideology)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84).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이 더러움—나아가서는 죄로 연결되어짐으로써, 동성애적인 공포를 내재화하고 있다. 후에 신부님의 연설은 이러한 동성애적 공포를 내재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또한 그가 기억하는 터스커 보일(Tusker Boyle)에 대한 회상에서 스티븐의 예술가론에 관한 흥미로운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보일은 코끼리는 두 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터스커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를 터스커 보일이라고 부른지 이유였다. 하지만 몇 친구들은 그를 보일 귀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그는 항상 손톱을 다듬고 있기 때문이었다. (P 42).

“tusker”는 분명히 “상아를 가진 수컷”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일은 신체적으로는 “남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친구들이 그의 여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Lady Boyle”라고 놀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화장실에서 “smuggling”으로 걸렸다는 것과 더불어 손톱을 깎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부각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스티븐의 예술가론에서 나타나는 손톱을 깎고 있는 신의 이미지와 같다는 점이다: “예술가는 창조의 신처럼 보이지 않은 채, 정교한 존재로 무관심한

상태로 손톱을 깎고 있으면서 자신의 작품의 모든 이면이나 전후, 혹은 초월해서 남아있다”(P 215). 창조의 신조차도 스티븐의—더 나아가 조이스의—예술가론에서는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보여준다. 팀 딘(Tim Dean)이 지적하듯이, 스티븐은 보일의 ‘죄’를 보일의 ‘여성성’과 연관짓고 있다(249). 따라서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에 관한 문화적 기호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재판으로 비롯된 동성애 담론의 부상은 당시의 문화적 기호들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영국의 교육제도는 성에 대한 비밀과 제약을 통해 오히려 남성만의 공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동성애적 경향을 암시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smuggling”에 관한 일화는 비밀과 제약으로 인해 억압된 성충동의 왜곡된 돌파구로서의 동성애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기숙사제도는 여성을 배제한 남학생들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표출되는 성적 관심은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동성애(homosexuality) 내지는 자기성애(homoeroticism)로 표출되는 성적 관심은 강인한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표출된 저항담론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양상은 조이스의 작품에 계속 이어진다.

『율리시스』의 첫 장에서 스티븐은 멀리건(Mulligan)이 팔짱을 끼면서 친근하게 얘기하는 순간에 크랜리(Cranley)가 팔짱을 껴던 순간을 연상한다: “크랜리의 팔. 그의 팔”(U 1.159). 남자끼리 팔짱을 낄 때 느꼈던 스티븐은 “동성애에 대한 공포”(homophobia)가 느껴지는 순간,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를 연상하게 된다.

충실한 친구, 우애적인 영혼: 감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와일드의 사랑. 그의 팔: 크랜리의 팔. (U 3.450-51)

남성 사이의 동료애라는 것이 동성애와 사실상 구별하기 힘든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에서 드러난 언급할 수 없는 사랑, 즉 동성애의 가능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스티븐은 멀리건이 낀 팔짱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스티븐은 동성애에 대한 공포는 영국 지배에 대한 저항과 무관하지 않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제국이 일부러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멀리건의 옥스퍼드 대학시절 친구인 클라이브 켐프소프(Clive Kempthorpe)를 언급함으로써, 스티븐은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클라이브 캠프조프의 방에서 돈 많은 목소리의 젊은 외침. 창백한 얼굴들: 그들은 서로가 잠으면서, 배꼽잡고 웃었지. 오! 죽겠네! 오브리, 그녀에게 부드럽게 이 소식을 전해라. 난 죽을 것 같아. 옷옷을 가늘게 찢어 만든 리본을 공중에 흔들면서 그는 탁자 주변을 뛰어다는데, 바지는 발목에 걸친 채로, 재단사의 큰 가위를 들고 막달렌의 에이디즈가 쫓고. 마말레이드로 범벅이 된 두려운 송아지의 얼굴. 나는 벗겨지고 싶지 않아! 나한테 아찔한 장난은 치지마.

(U 1.165-71)

조이스가 인식한 영국식 기숙학교 제도가 필연적으로 동성애나 자기성애로의 성적 성향을 형성시키는 원인으로 지적했듯이, 이는 여성을 배제한 완전한 남성성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옥스퍼드의 튜터 제도(the Oxford tutorial system)는 교육적인 친밀감의 특징을 갖고 있고, 지적인 전통이 여성의 배제의 원칙에 입각되었다(Morgan 136). 당시 영국의 교육은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적 경쟁 관계에 처해있어, 영국의 산업화의 발전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교육에 대한 강조가 증대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전통적인 고전 교육과 자유주의 교육을 지지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였다(Platt 512).

열려 있는 창문에서 나온 괴성들은 사각정원의 저녁을 놀라게 했고. 앞치마를 두르고 매튜 아놀드의 얼굴로 가면을 쓴 귀머거리 정원사는 춤추는 풀줄기 조각들을 세밀히 바라보면서 어두운 잔디밭에서 자신의 잔디 깎는 기계를 밀고 있거. (U 1.172-75)

옥스퍼드 대학의 정원을 손질하는 귀머거리 정원사의 얼굴이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묘사는 이런 동성애적 현상이 아놀드의 헬레니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써시」장에서도 일란성 쌍둥이 “필립 소버”(Philip Sober)와 “필립 드렁큰”(Philip Drunken)도 아놀드의 얼굴을 하고서 잔디를 깎고 있다. “켈트 문학 연구에 대해서”(“On the Study of Celtic Literature,” 1867)에서 매튜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켈트족의 특성을 규정한다:

신경적 흥분이라는 켈트적 본성의 감수성은 그들에게는 여성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고, 켈트족은 따라서 특별히 여성적 개성의 마법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 켈트인은 여성적 개성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비밀로부터 멀지 않다. (Lloyd 133, 재인용)

여기서 아놀드는 아일랜드 민족의 특성에 여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적극성과 수동성, 사회와 가정 등 다양한 지배/피지배 관계를 양산한다. 따라서 영국의 ‘존 불’(John Bull)에 순종하는 ‘에린’(Erin)이나 ‘하이버니아’(Hibernia)이라는 여성적 이미지를 영국제국이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영국은 사용했다. 그러나 조이스는 아놀드의 헬레니즘화(Hellenization)을 동성애 문화와 연결 지음으로써 영국지배사회의 모순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헬레니즘과 동성애에 관한 연관성은 『율리시스』를 관통해서 수없이 언급된다. 디덜러스(Dedalus)라는 이름이 함축하듯이, 크레타의 여왕 파시페(Pasiphaë)는 수간(獸姦)을 통해 미노타우어(Minotaur)라는 기형을 만들었다. 그 일로 인해 다이달로스는 자신이 만든 미로에 갇히고,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날개를 달고 탈출하다가, 이카루스가 태양에 너무 근접해서 밀랍이 녹아내려 추락했다는 신화와 연결된다. 이러한 신화는 「써시」장(“Circe”)에서 재현 된다.

정의로운 뿔이 들어올려지리다. 여왕은 황소 상과 함께 누웠다. 기억하라, 최초로 하나님에 고해성사 함을 만들게 했던 파시페의 욕정을. 잊지 말지어다, 그 리즐 스티븐즈 부인과 램버트 가문의 자손들을. 그리고 노아가 술에 취했었지. 그리고 그의 성체도 열렸고. (U 15.3865-67)

파시페의 욕망이 최초의 고해실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은 앞서 언급했던 「자매」에서의 신부의 ‘죄’가 성적인 욕망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욕정과 탐욕의 인물들을 언급함으로써 ‘죄’가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음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조이스가 “디덜러스”라는 회랍적인 성을 사용한 것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회귀를 주장했던 매튜 아놀드의 이면을 들추는 일이다. 아놀드의 문명론은 서구의 역사가 발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발전의 현실은 성적 타락이라는 상충된 모습으로 비판한다.

스티븐은 파리에서 만난 케빈 이건(Kevin Egan)을 통해서 음탕한 풍습에 관해서 언급한다.

방탕한 남자들. 업살라의 목욕탕에서 남자들의 벗은 몸을 문질러주는 잡역부의 하녀. 그녀는 말했다. 제가 하죠, 모든 신사 분들을 위해서. 이 신사 분은 아니고. 가장 방탕한 관습. 목욕은 가장 음탕한 것. 초록빛 눈, 당신을 보죠. 송곳니, 나는 느끼죠. 음탕한 사람들. (U 3.234-38)

아놀드가 말한 것처럼 역사가 발전하고, 현재는 늘 역사 발전의 최고조라면 스티븐이 경험한 파리에서의 성적 타락도 그 최고조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일란성 쌍둥이 필립이 아일랜드의 금주운동(*temperance league*)와 연결 짓는 것도 남성성을 강조하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는 공히 폭력성(*physical violence*)과 알콜중독(*alcoholism*)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적수들」(*“Counterparts”*)에서 패링턴(*Farrington*)은 남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근무시간에도 살짝 빠져나가서 술을 한잔 마시고 들어 올 정도로 알콜에 중독되어 있고, 시계를 전당잡히고 생긴 돈으로 술집을 전전하며 써 버린다. 하지만 한 술집에서 웨더즈(*Weathers*)라는 영국에서 온 곡예사와 국가의 명예를 걸고 한 팔씨름에서 패하게 된다. 게다가 마음에 드는 영국 여자에게 술 한 잔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그의 불만은 극대화된다. 결국 집에 돌아와 어린 아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의 문제는 『율리시스』의 「유메이어스」(*“Eumaeus”*)장에서는 수면으로 부상한다. 「우연한 만남」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밝혀지기를 꺼려해서 각자의 이름을 머피(*Murphy*)와 스미스(*Smith*)로 부르는 것에서도 그들의 동성애에 대한 공포가 드러난다. 여기서 사용된 머피라는 이름은 분명 아일랜드인의 보통 이름이지만, 「유메이어스」장에서의 선원이 머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머피의 존재 자체는 블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복잡하다. 「텔레마커스」장에서 샌디코브 강변에서 익사 사건을 목격하는 장면에서 본 두 사람에 관한 생각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상인, 선원” (*U 1.669-70*). 이 두 직업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머피도 거기서 배제될 수 없다. 우선 머피는 블룸과 마찬가지로 오디세이적인 인물이며, 신체적으로는 분명히 남성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세 가지인데, 그 중의 하나가 숫자 16이다. 이 숫자는 일종의 점치는 게임에서 “예술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 문신을 새겨준 사람은 안토니오라는 그리스인이다: “안토니오라는 이름의 친구가 문신을 했지. 그 자신도 회랍인이요”(Fellow, the name of Antonio, done that. There he is himself, a Greek, *U 16.678-79*). 『율리시스』에서 “회랍인”은 쉽게 동성애와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머피와 안토니오의 관계는 동성애적인 관계임을 암시해 준다. 또한 선원생활이라는 제한된 공간도 영국의 교육제도에서 파생된 동성애의 가능성을 안

고 있다. 머피가 선원이라는 점은 바로 영국의 해외진출에 참여한 계층이라는 점이고, 제국주의적인 남성성의 강조는 결국 동성애라는 성적 일탈을 생산하는 모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조이스는 빅토리아 시대의 성의 왜곡이 “비밀”과 “억제”라는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영국이 교육제도는 남성성만을 강조하면서 제국주의의 이념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산물인 동성애나 자기성애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의 이념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기숙사학생, 선원, 그리고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군인이라는 집단은 특성상 성의 왜곡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조이스는 영국 제국주의의 기초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가톨릭 사회의 성적 표현에 대한 억압과 사제제도가 안고 있는 성적 억압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머피가 등장하는 「유메이어스」이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사건의 하나인 피너스공원 암살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급진적인 민족주의의 남성성에 대한 강조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III.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은 영웅적인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여성화된 아일랜드의 육체와 정신을 일깨우려고 했지만, 조이스는 이러한 지나친 남성성의 강조는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조이스에게 있어서 동성애의 문제는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이 영국사회의 치부를 드러냈듯이, 영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담고 있는 모순성을 동성애의 문제를 끌어들이며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

조이스의 성장기인 1880년대와 1890년대는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이 문화영역에서 아일랜드의 정체성 형성에 집중했던 시기였다. 특히 게일어의 부활을 주도했던 문예부흥운동과 더불어 아일랜드의 민족정신의 고취를 표방했던 게일운동협회(the Gaelic Athletic Association)는 영국의 식민지 이념의 근간을 형성했던 남성성의 강조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보여준다. 게일운동협회가 주도하는 민족주의 운동은 고착화된 아일랜드의 여성적 이미지를 벗어나 고대 아일랜드의 남성적인 영웅주의 부활을 통해 “존 불”(John Bull)로 상징되는 영국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따라서 스포츠에서부터 의회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남성성을 “압도할 수 없는 저항정신과 충성심의 표상”(the sign of an indomitable resistance and of a spirit of loyalty)으로 간주하였다(Lloyd 132).

조이스에게 있어서 동성애의 문제는 성 정체성에 대한 탐구이며, 이성애(heterosexuality)라는 지배담론에 대한 저항으로서 동성애 담론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제국주의나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의 이념의 이면에 도사린 남성적 우월주의도 동성애를 생산해내는 담론임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머피를 통해서 선원—무역상과 해군—의 세계를, 영국교육제도하의 기숙학교, 그리고 가톨릭의 사제제도에서 모두 성적 욕구의 표출의 분출이 동성애로 표출되게 되는 사회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이스는 성적 욕구의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이념의 근간인 강력한 국가관은 여성을 배제한 남성만의 교육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욕구의 표출은 당연히 억압과 통제로 인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조이스는 영국의 교육제도가 남성성의 강조를 부추기는 동시에 왜곡된 환경을 조성하여, 동성애나 자위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한다.

조이스와 성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에서 리처드 브라운(Richard Brown)은 19세기말 유럽은 성도착(sexual perversity)을 통해서 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했음을 강조한다(51). 이러한 상황에서 조이스가 그리는 동성애의 문제는 분명히 이러한 “성도착”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조이스는 성이 단순히 성 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교차점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탐구했던 동성애의 문제는 아일랜드의 식민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된 성 담론에 대해서도 스스로 “성도착자”라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오스카 와일드의 추문이 성적 성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에서 소수자였던 것처럼. (서울산업대)

인용문헌

- Anderson, Chester G. "Should Boys Have Sweethearts?" *Joyce and Popular Culture*. Ed. R. B. Kershner.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96. 49-63.
- Bixby, Patrick. "Perversion and the Press: Victorian Self-Fashioning in 'A Painful Case.'"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Ed. Oona Frawley. Dublin: The Lilliput Press, 2004. 112-21.
- Brown, Richard. *James Joyce and Sexuality*. Cambridge: Cambridge UP, 1985.
- Castle, Gregory. "Confessing Oneself: Homoeros and Colonial *Bildung*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Quare Joyce*. Ed. Joseph Valen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157-82.
- Dean, Tim. "Paring His Fingernails: Homosexuality and Joyce's Impersonalist Aesthetic." *Quare Joyce*. Ed. Joseph Valen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241-272.
- Dettmar, Kevin. "Vocation, Vacation, Perversion: Stephen Dedalus and Homosexual Panic." Ed. Michael Patrick Gillespie. *James Joyce and the Fabrication of an Irish Identity*. European Joyce Studies 11. Amsterdam: Rodopi, 2001. 132-50.
- Jackson, Roberta. "The Open Closet in *Dubliners*: James Duffy's Painful Case." *JJQ* 37.1/2 (Fall 1999/Winter 2000): 83-97.
- Jackson, John Wyse, and Bernard McGinley, eds. *James Joyce's Dubliners: An Illustrated Edition with Annotation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3.
- Joyce, James. *Dubliners*. New York: Vintage, 1993.
- _____. "Oscar Wilde: The Poet of 'Salome.'"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201-205.
- _____. *Ulysses*. Ed. Hans Gabler. New York: Vintage, 1986.

- Leonard, Garry. "'The Nothing Place': Secrets and Sexual Orientation in Joyce." *Quare Joyce*. Ed. Joseph Valen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77-97.
- Levine, Jennifer. "James Joyce, Tattoo Artist: Tracing the Outlines of Homosocial Desire." *Quare Joyce*. Ed. Joseph Valen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101-120.
- Lloyd, David. "Counterparts: *Dubliners*, Masculinity, and Temperance Nationalism." *Semicolonial Joyce*. Eds.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P, 2000. 128-49.
- Morgan, Jack. "Queer Choirs: Sacred Music, Joyce's 'The Dead,' and the Sexual Politics of Victorian Aestheticism." *JJQ* 37.1/2 (Fall 1999/Winter 2000): 127-51.
- Mullin, Katherine. *James Joyce, Sexuality and Social Purity*. Cambridge: Cambridge UP, 2003.
- Norris, Margot. "A Walk on the Wild(e) Side: The Double Reading of 'An Encounter.'" *Quare Joyce*. Ed. Joseph Valen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19-33.
- Platt, Len. "Corresponding with the Greeks: An Overview of *Ulysses* as an Irish Epic." *JJQ* 36 (Spring 1999): 507-23.
- Rabaté, Jean-Michel. "On Joycean and Wildean Sodomy." *Quare Joyce*. Ed. Joseph Valen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35-44.
- Teal, Laurie. "Batlike Souls and Penile Temptress: Gender Inversions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ovel* 29 (Fall 1995): 63-78.
- Valente, Joseph, ed. *Quare Joyc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 _____. "Thrilled by His Touch: The Aestheticizing of Homosexual Panic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Quare Joyce*. Ed. Joseph Valen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47-75.

Abstract

Joyce, Homosexuality, and Imperialist Ideology

Kiheon Nam

Joyce's references to homosexual incidents in his work cannot be regarded as a sign of his benign reception of it as a minority discourse. I argue that the frequent references to homosexuality in Joyce's work reveal not only his critique of the legitimate dominance of heterosexuality, but also could be implicitly related to his critique of imperialist ideology. He once remarked that he had better dedicate his story, "An Encounter," to George Meredith, whose royalist ideas, Joyce thinks, may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English educational system. From the trials of Oscar Wilde, he must have been aware of the homosexual practices among English elite and noble societies.

Even the first story of *Dubliners*, "The Sisters," indicates an implicit negotiation with homosexual practices, e.g. pedophilia. Old Cotter suggests a possibility of the unutte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 and the boy narrator. Joyce implies that the celibacy of priesthood is vulnerable to possibility of pedophilia. In addition, Joyce goes on to emphasize the implicit relationship between imperialist ideology and the English educational system. In "An Encounter," an old queer jossier encourages two boys to confess if they have sweethearts. But his abruptly changed attitudes reveals the imperialist ideology that focuses on the exclusion of females in the minds of boys in the school, thus making it possible for school boys to focus their attention only on sports and work. This ideological dictate was inculcated into the minds of school boys through popular magazines supporting the imperialist ideology. But this imperative produced a cult of homosexuality among the English elites. Too much emphasis on masculinity produces a distortion of sexual desire into homoeroticism or homosexuality.

■ Key words : Joyce, Homosexuality, Colonialism, popular culture, education (조이스, 동성애, 식민주의, 대중문화, 교육)